

기력 찾은 호랑이 “사자 나와”

윤석민 선발 17승 사냥... 임준혁 마운드 합류 뒷문 ‘든든’

KIA, 22일 대구 원정... 주말엔 두산과 홈경기

끝내기 만루포로 기력을 채운 호랑이 군단이 자존심 회복을 위한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18일 홈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차일목의 끝내기 만루홈포로 7-3의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썼다. 후반기 좋지 호랑이 신세로 몰락했던 KIA는 기적같은 끝내기포를 통한 상승세를 앞세워 이번주 3전 전승을 노린다. 상대는 후반기 KIA의 순위싸움에 제동을 건 삼성 그리고 두산이다.

22일 대구 원정에 나서 삼성과의 시즌 마지막 대결을 갖는 KIA는 24·2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올 시즌 마지막 주말 홈경기를 치른다.

KIA는 전반기 삼성과의 대결에서 6승5패로 호격지세를 보였다. 하지만 후반기 7번의 대결에서 단 1승 만을 가져오며 7승11패로 전세가 뒤집혔다.

두 경기차로 앞선 1위로 전반기를 마감했지만 삼성전 연패 행진 속에 4위까지 추락했다. KIA를 제물 삼은 삼성은 1위 독주를 이어 가며 삼태인을 터트릴 날을 기다리고 있다.

선발 김선우와 페르난도의 마무리 정착으로 팀 재정비에 성공한 6위 두산도 만만치 않은 상대다.

KIA는 지난달 30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나지완의 만루홈런과 김상현의 백투백 홈런



차일목

에도 불구하고 충격의 역전패를 당한 뒤 두산전까지 5연패를 기록했었다.

특급 불펜의 삼성, 마무리 페르난도로 힘을 더한 두산과의 마운드 힘 싸움이 이번주 승부의 관건.

삼성전 윤석민의 선발이 예정된 가운데

■ 2011 프로야구 중간순위 (9월 19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삼성	118	70	46	2	0.603	-	1패
2 SK	119	64	53	2	0.547	6.5	1승
3 롯데	124	65	54	5	0.546	6.5	1승
4 KIA	126	67	59	0	0.532	8.0	1승
5 LG	120	55	64	1	0.462	16.5	3패
6 두산	118	53	63	2	0.457	17.0	1패
7 한화	122	54	66	2	0.450	18.0	1패
8 넥센	119	47	70	2	0.402	23.5	1승

상무에서 군복무중인 임준혁이 21일 제대와 함께 주말 KIA 마운드에 합류한다.

임준혁은 지난해 퓨처스리그에서 다승(15승), 방어율(2.90), 탈삼진(135) 3관왕에 오르며 부쩍 기량이 성장했다. 올 시즌에도 2.99의 방어율로 11승4패를 기록했다.

두둑한 배짱과 묵직한 직구의 임준혁은 KIA의 정규리그 남은 7경기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 불펜의 감쪽 카드다.

심동섭도 불펜의 핵심 카드다. 신인왕에 도전하고 있는 좌완 심동섭은 18일 LG와의 경기에서 배짱투로 팀 승리의 발판을 닦았다.

7회 1사 만루에서 LG의 톱타자 이택근을 상대로 더블 플레이를 유도한 심동섭은 4이닝을 단 하나의 안타로 막으며 끝내기포의 주역이 됐다.

심동섭-임준혁 두 선수의 배짱투가 자존심 회복에 나선 호랑이 군단의 전략적 무기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 ‘이동국 天下’

13도움 1위... 사상 첫 개인상(MVP·득점왕·도움왕·신인왕) 전관왕 달성 ‘눈앞’

‘라이언 킹’ 이동국(전북)이 막바지로 향하는 K리그에서 개인상 전관왕 사냥에 나선다.

이동국은 지난 25라운드 경남과의 경기에서 1골1도움의 활약으로 팀의 3-1 승리를 이끌면서 ‘맨 오브 더 매치(MOM)’에 선정됐다.

골과 도움을 추가하면서 이동국의 올 시즌 성적은 14득점 13도움이 됐다. 서울의 데얀(19), 상주 김정우(15)에 이어 득점 부문 3위에 올라있고, 도움은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도움은 개인 최다 기록인 14개에 하나 만을 남겨 놓고 있다.

마지막 30라운드까지 도움 1위를 유지하면 이동국은 K리그 사상 최초로 MVP와 신인왕, 득점왕 그리고 도움왕 등 4개의 개인상을 모두 수상하는 선수가 된다. 이동국은 포항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이동국 개인 트로피

- 1998 시즌 신인왕
- 2009 시즌 MVP·득점왕
- 베스트11 스트라이커
- 판타스틱 플레이어상

데뷔한 1998년 컵대회 포함 11골 2도움으로 신인왕을 수상한 뒤 지난 2009년 프로 데뷔 11년 만에 MVP의 영예를 안았다. 이해 이동국은 22골을 몰아넣으며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MVP와 득점왕, 베스

트 일레븐의 스트라이커, 팬들이 뽑은 판타스틱 플레이어상까지 4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지금까지 이동국을 포함한 5명의 선수가 K리그에서 수상하는 4개의 개인상 중 3개를 수상한 적은 있다.

신태용 성남 감독이 MVP(2회)와 득점왕, 신인상을 수상했고, 고정운·이천수·이홍실이 각각 MVP와 도움왕, 신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4개 부문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없다.

이동국이 지난 25라운드에서 팀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한 수원 염기훈(10도움)과 K리그 사상 최초로 한경기 득점·도움 해트트릭을 작성했던 서울의 몰리나(10도움)의 추격을 따돌리고 개인상 전관왕 수상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30년 타이거즈 30년

〈45〉 2003 시즌 현대 내우외환 속 KS 제패

눈물의 우승컵 故 정몽헌 구단주 영전에

2003시즌 현대 유니콘스는 야구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정몽헌 구단주의 갑작스러운 타계와 모기업의 재정난 등으로 인한 내우외환을 극복하고 값진 우승을 일궈냈다.

현대는 페넨트레이스 1위에 이어 한국시리즈까지 제패하며 21세기 ‘신홍 명문 구단’으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었다. 또한 80승 중 반이 넘는 41승을 극적인 역전승으로 장식하며 끈질긴 뒷심의 ‘현대가의 자력’을 보여주었다.

개막전 현대의 전력은 전년도 4위 성적에 별도의 선수 보강 없이 FA 최대이었던 박정완을 잡지 못하고 SK에 빼앗긴데다, 타선의 핵이었던 박재홍의 ‘선수 팔아 연명하기’ 등의 약재가 겹친 것에 비해 실로 극적인 대반전이었던 것이다.

현대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컴백한 정민태의 다승(17)과 승률(0.895), 바위스의 방어율(3.01)과 이상열의 홈드(16)

부분 1위로 두터운 마운드를 구축하였다.

타격에서는 심정수가 장타율(0.720)과 출루율(0.478) 부문 2관왕에 오르며 주포 역할을 확실히 해냈다. ‘소년 장사’ 심정수가 ‘국민 타자’ 이승엽과 시즌 막판까지 치열한 홈런 레이스를 펼치며 ‘잡자리채 소동’을 겪은 끝에 이승엽에게 3개 뒤진 53홈런으로 2위에 그치긴 했지만, 그해 한여름 밤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홈런 쇼는 명승부로 기억될 것이다.

2003시즌 준플레이오프전서 4위였던 SK는 3위 삼성에 2전 전승을 거두고 플레이오프전에 진출했고, 그 여세를 몰아 플레이오프전서도 2위 KIA에 3전 전승을 거두며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2003시즌 한국시리즈는 퍼죽지세로 상위팀들을 제압하고 첫 패권을 노리는 SK와 현대간의 경인지역 패왕 다툼으로 압축되었다.

한국시리즈 1차전서는 현대가 정민태

와 조중준의 깔끔한 계투 성공으로 3-2 선승을 거두었다. 2차전서는 선발 바위스의 초반 난조와 이호준-안재만에게 홈런 포를 맞으며 현대가 3-5로 역전패하고 말았다. 3차전서도 현대 선발 김수경의 난조속에 이진영에게 홈런을 맞고 또 다시 3-5로 역전패를 당했다.

4차전서는 선발 정민태가 1회에 3실점하며 불안한 출발을 했지만 전준호-이승용의 각 3타점의 맹타로 현대가 9-3으로 대역전승을 거두었다. 5차전에서도 선발 김수경의 호투와 브룸바의 4타점 원맨쇼에 힘입어 8-3으로 낙승했다. 6차전서는 현대가 SK 체병풍의 역투와 이진영의 홈런에 무너지며 0-2로 완패했다.

3승3패의 팽팽한 점전의 종결인 7차전서는 한국시리즈 MVP에 오른 현대 정민태가 페이스 피칭으로 SK의 벌집 타선을 7-0으로 셋아웃시키며 대타원의 막을 내렸다.

의미 있고 감격적인 우승을 차지한 현대 유니콘스의 선수단이 눈물의 우승 트로피를 고 정몽헌 구단주의 영전에 바치는 것을 끝으로 2003 시즌도 저물었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독교회장〉

맨유, 라이벌 첼시에 3-1 완승

5전 전승 선두 질주... 박지성은 결장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라이벌’ 첼시를 꺾고 5연승 행진을 달렸지만 박지성에게는 출전기회가 돌아오지 않았다.

박지성은 19일 새벽(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첼시와의 2011-2012 5라운드 홈 경기에서 교체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박지성은 지난 15일 벤피카(포르투갈)와의 2011-2012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풀타임

출전했지만 정규리그에서는 지난 11일 불펜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으로 결장했다.

박지성의 자리인 왼쪽 미드필더로는 ‘이적생’ 에슬리 영이 선발 출전해 90분 동안 공수에서 활약했고, 프리킥 때 키커로 나서 도움도 하나 올렸다.

맨유는 강력한 라이벌 첼시를 상대로도 올 시즌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는 폭발적인 공격력을 뽐내며 전반에만 세 골을 몰아쳐 3-1로 이겼다.

전반 8분 영이 페널티지역 왼쪽 외곽에서 열린 프리킥 크로스를 수비수 크리스 스몰

링이 머리로 받아 선제골을 터뜨렸다. 전반 37분에는 나니가 페널티지역 외곽에서 상대 수비수 네 명의 견제를 뚫고 날린 중거리슛이 골망에 꽂혀 결승골이 됐다.

맨유는 골잡이 웨인 루니가 전반 45분 골문 앞 혼전에서 흘러나온 볼을 재빨리 골문 안으로 차넣어 세 번째 골을 뽑았다.

맨유는 올 시즌 5전 전승으로 선두를 굳게 지켰고 첼시는 올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

팬들의 시선을 모은 ‘백전노장’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과 새로 첼시의 지휘봉을 잡은 ‘젊은파 사령관’ 안드레 비아스 보아스 감독의 첫 맞대결은 백전노장의 환골승으로 막을 내렸다.

/연합뉴스

Llumar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죽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죽시트

최저가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RV 5인기준 40만원 → 30만원 부터

한국타이어 | 힐 | 경정비

공짜

타이어 4짝 교체시 텍스타일스노우체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

- 얼리먼트 3-5만원 무상점검
- 평생 펑크 무상점검
- 타이어알, 뒤 순환교체 평생 무료증정
- 브러쉬와셔액 무료증정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Meguiar's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 소형 25만원 → 13만원
- ▶ 중형 30만원 → 18만원
- ▶ 대형 35만원 → 23만원
- ▶ RV 35만원 → 23만원
-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

한국카렌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렌드가 하는 일

-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클리닝, 허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인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밧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일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객정 끝

한국카렌드